

MK BLOSSOMER

김영철 양선나 MK 교육선교사



샬롬. 알마티에 온지 7월 9일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하진이가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 큐티"로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책을 마쳤다고 하면서 알마티에 온지 100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곳 생활이 많이 익숙해져서 마트에서도 될 수 있으면 구글 번역기를 덜 사용하면서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날씨에 대한 적응이 도전이 됩니다. 낮에는 41도까지 올라가는데 필리핀보다 더 덥게 느껴집니다.

카자흐스탄에는 130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이 땅에서는 그 누구 하나도 외국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잘 어울려 지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KF 94 마스크입니다. 아직까지 한국분 이외에 강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카자흐스탄 이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최근 이곳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본인 확인을 마쳐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주말에 다시 문을 닫기 시작하여 코로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진이는 기후 변화 때문인지 두피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다에는 아직도 기도할 때 한국으로 빨리 보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방학동안 알마티를 구경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이곳에 정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MK의 어려움 중 하나로 알려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와 어쩔 수 없이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저희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MK 사역자로서 현실에 부딪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모든 MK 들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MK 들을 위해 더 준비된 교사로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하진이 두피 지루성 피부염

하진이 한달 넘게 머리에 피부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머리 전체에 빨갛게 뾰두라지가 나고, 일부는 고름이 나서 누워서 잠자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연고를 발랐지만, 작은 원형탈모가 생기기 시작하여 며칠전에 하진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통역이 있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을 갔는데 환경의 변화나 물, 음식,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용하는 약 2개와 바르는 약 4개를 처방받아 왔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오랜 기다림 끝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3개월 동안 택시를 이용하면서 이곳에 운전하는 문화를 익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서의 운전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필리핀에서의 운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쉽게 할 수 있겠지란 생각을 했는데, 이곳은 차를 거칠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운전 에 조금은 긴장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국산차를 운행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할 집

7월 31일에 이사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집의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학교와는 거리가 멀어서 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될 집을 찾으면서 적당한 집이 나오지 않아 걱정도 되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알맞은 집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 프로그램을 마침

김영철 선교사는 북미 기독교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구성된 단체인 NACCAP에서 진행한 가이던스 카운슬러 프로그램을 지난 1년간 온라인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NACCAP에서 수여하는 가이던스 카운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텐산 학생들에게 크리스천 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캠프

양선나 선교사는 방학동안 학교에서 ELL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총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영어를 잘 하게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자신감을 키우면서 영어로 읽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선생님 인원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참석한 학생들의 새학기 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영어를 좋아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7 월 기도 제목

- 하진의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완전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8월 초에 있을 새학기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진과 다애가 카자흐스탄과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